

제3연륙교 건설후 국제공항 통행량 급감

유필우 의원, 28% 감소 주장

경남기업 컨소시엄이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영종~청라연결도로) 민자 건설을 제안한 가운데, 제3연륙교를 개설할 경우 기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량 28%가 감소해 정부의 재정지원금이 6년간 2천767억원이나 증가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천공항 접근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해 정부 부담이 추가로 증가하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교위 소속 유필우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건교부는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공항고속도로 교통량의 28%가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교부는 또 제3연륙교가 민자 제안대로 2015년 건설될 경우 공항고속도로의 예측 통행량이 28%가 감소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금이 최초 6년간(2015~2020년) 2천767억원이 증가,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요예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통행예측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벌여 공항고속도로의 운영수익 보전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건교부가 교통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난 2004년 감사원의 교통량 검증 결과, 민간 운영기간인 20년간(2001~2020년)의 실제 교통량이 당초 예측 교통량의 52.7%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면서 정부의 수익보장금 지급액이 2조3천8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은 교통 분산효과로 인해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들어 제3연륙교 건설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 의원은 “정부 부담을 줄이려면 현재의 불합리한 수요예측 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운영 수익보전에 대한 계약 내용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제3연륙교는 영종 등 인천 주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정부가 재정 부담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더라도 주민과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건설이 가능하도록 건교위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입력: 2006-10-12 23:00:15